아시아 유일 '마애타종상' 국가문화재 지정을…

〈국보 · 보물〉

숨겨진 성보 '마애종' 아시나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기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마애종. 고려 11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고려로 이어지는 범종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 어떻게 걸리고 타종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사진제공=안양박물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32. 안양예술공원 뒤편 1차선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보호각이 설치된 마애조각상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안양 석수동 마애조각상은 여타의 마애불보살상과는 다르다. 부처님과 보살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 아니라 승려가 범종을 타종하는 모습을 조각해 놓았기 때문이다. 해당 문화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2호 '석수동 마애종' 이다.

마애종의 재발견

마애종을 중심으로는 남쪽으로 통일신라에 창건된 중초사지와 고려 태조 때 건립된 안양사지, 서쪽으로는 장석광 사지가 있다. 이밖에도 주위에는 염불사, 삼막사 등 고찰들이 있어, 예로부터 해당 지역이 불교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초사에서 안양사를 거치다가 16세기 이후 안양사가 폐사되면서 잊혀졌던 마애종이 다시 부각된 것은 1916~1917년 조선총독부가 경기도 일대 고적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다. 해당 조사를 통해 마애종과 중초사지 당간지주, 삼층석탑, 귀부 등이 처음으로 조사 · 소개됐다.

하지만 중초사지 · 안양사지에는 1960년대 ㈜유유산업의 안양공장이 들어섰고, 2007년 안양시가 부지를 매입하기까지는 일대는 제대로 된 발굴과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1980년 6월 석수동 마애종이 경기도 유형문화재에 지정되고, 2001년 늦었지만 보호각이 설치되고 2018년 보호각을 재정비하는 조치가 꾸준히 진행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마애종 문화재적 가치는

석수동 마애종은 5m정도의 정방형 암면을 고르게 다듬고 음각과 양각을 이용해 승려가 두 손으로 당목(撞木)을 잡고 종루에 매달린 범종을 타종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애종 조성 시기를 고려시대 11세기 전 · 중반으로 보고 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통일신라 범종으로부터 당좌(撞座)는 종신 앞, 뒤에 2개가 장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4개의 당좌가 표현된 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마애종은 통일신라 작품이라기보다 고려시대의 종을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범종 전문가인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는 연구논문 '안양 석수동 마애타종상 조형과 편년' 에서 "석수동의 마애종은 새로운 고려 범종의 이행을 보여주는 4개의 당좌를 지닌 고려 전기의 과도기적 범종을 재현한 작품"이라면서 "종루(鐘樓) 안에 달린 2m 조금 넘는 대형 범종을 당시의 스님이 당목으로 타종(打鐘)하는 구체적인 장면을 생략과 강조를 적절히 조화시킨 고려 전기 마애조각의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 마애조각은 국내 유일 뿐 아니라 아시아 유일의 마애타종상"이라며 "하루빨리 지방 문화재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응천 교수의 주장처럼 전문가들도 여러 연구를 통해 마애종이 갖는 역사적 · 예술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내 · 외 유일한 마애타종상으로 고려 전기 범종의 과도기적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범종의 실제 타종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의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2019년에 발간된 〈안양 석수동 마애종 학술조사보고서〉는 "마애종은 암벽에 부조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평면의 구성에서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고려 전기 범종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양식적 단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은 안양박물관 학예사는 "나말여초 시대의 범종은 남아 있지만 어떻게 범종을 쳤는지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마애종은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범종을 타종했는지를 확인시켜준다"며 "타종하는 당목이 절구모양으로 묘사돼 있는데, 고대 범종의 당목을 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석수동 마애종은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삼층석탑 등의 불교문화재와 함께 안양사의 사역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면서 "안양지역 성립과 성장을 알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대 종루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국내에 가장 이른 사료적 가치도 있다. 〈안양 석수동 마애종 학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범종이 설치된 종가(鐘架)가 당시 종루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며 "동아시아 고대 평지 사찰이 사찰 전면 혹은 후면에 대칭으로 종루와 경루를 배치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마애종은 한반도 고대 종루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이라고 밝힌다.

안양시, 지정 시도 '잰걸음'

이처럼 뛰어난 가치를 지닌 성보문화재이지만, 국보 ·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시도가 없던 것은 아니다. 2008년 11월 당시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안양군포의왕지부와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가 공동으로 '제3회 안양세계 마애종 문화포럼' 을 열고 지방문화재에 머물러 있는 석수동 마애종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으나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후 15년이 지난 2019년 8월 안양시는 '안양 석수동 마애종의 가치와 보존 및 활용' 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석수동 마애종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에 나섰다. 이후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해 9월 현장 방문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 건의하기도 했다.

국보 ·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마애종 보존에 있다. 1차선 좁은 도로로 사람과 차량이 함께 사용하며 성보를 참배해야 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인근 재개발로 인한 대형 공사 차량들로 인해 문화재 암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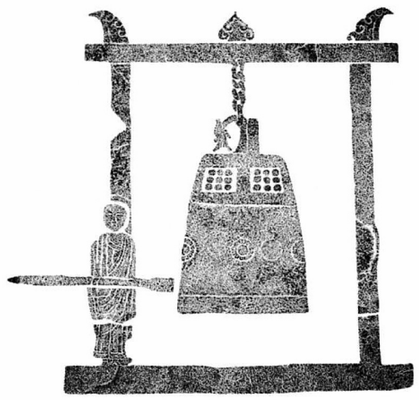
하지만, 마애종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최대 난관은 지역 주민의 정서다. 현재 석수동 일원은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마애종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될 경우 주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마애종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중초사지 · 안양사지 일원 종합 정비과 함께 마애종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준비 중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작한 중초사지 일원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마애종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도 함께 추진된다. 중초사-안양사로 이어지는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마애종과 안양사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신청할 것"이라며 "현재 소유자는 불교안양원인데, 구두 논의한 결과 지정에 이견을 갖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재적 가치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중초사지 종합정비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도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면서 "국내 · 외 유일 마애조각 '석수동 마애종' 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 불교계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양예술공원 인근에 위치
2008 · 2019년 지정추진돼
아직까지 구체적 성과 미미
안양시측 "장기적으로 접근"



석수동 마애종 탁본

타종 마애조각 유일한 사례
고대 종루 · 타종 확인 가능
고려의 범종 양상 잘 보여줘
"국보 · 보물 지정 가치 충분"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공고

Ⅰ.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Ⅲ.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20. 12. 28(월) ~ 2021. 02. 19(금)	· 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인터넷 교부.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 및 합격자 발표	2021. 02. 25 (목)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 입학식 및 학사일정 추후 공지

※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 **특전** : 본종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 시 선덕 법계 품수

Ⅴ.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접수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반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이메일(dongbang2030@naver.com), 우편 접수 ※ 문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EL 02)745-2030 HP 010-3089-9983

Ⅵ. 교육비

○ 전형료 : 5 만원 ○ 입학금 : 20 만원
○ 등록금 : 학기당 70 만원 농협 301-0212-6468-11 예금주 / 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입학문의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www.dongbang.org
TEL 02-745-2030, 010-3089-9983, FAX 02-733-0728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112)